



/ KOTRA

2001

9

11

6

가

2000 6
20

가

12 4
4

2001

가

가

2000 4 2,515

1 ~ 11 3

6,268

9.3%

가
가

가

3

5.7%

, 非

5

13.9%

6

따른 수요 위축,¹⁾ 그리고 상반기의 남북간 선박 운항 차질 등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연초 발생하여 수개월 지

지난해 남북 관계의 담보 상황과 궤를 같이 하여 남북간 경제 교류와 협력도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질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속된 남북간 선박 운항 중단 사태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선박 운항이 재개된 하반기 이후 거래성 남북 교역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1>을 보면, 하반기 非거래성 교역의 급감세로 인해 남북 교역 전체로는 부진이 계속되었으나, 위탁가공 교역, 반입 등과 같은 상업적 거래는 상반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非거래성 교역의 감소세 전환은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교역보다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말까지 승인된 ‘경제협력사업’ 23건중 실제로 북한과 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4~5개에 불과하는 등 경제협력사업의 저변은 극히 협소한 상황이다. 또한, 협력 승인을 받은 사업들 가운데 경수로 건설사업과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제외한 순수 민간기업 차원의 투자 승인액은 수천 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대북 투

<표 1> 2001년 남북 교역 추이

	2001년 1~6월			⇒	2001년 1~11월		
	반 입	반 출	반출입계		반 입	반 출	반출입계
교역 총액	63,266 (-1.9)	134,024 (-3.1)	197,290 (-2.7)		155,989 (10.9)	206,693 (-20.3)	362,682 (-9.3)
거래성 교역	63,102	26,534	89,636 (-18.3)		153,585	57,317	210,903 (-5.7)
- 상업적 매매 거래	39,608	4,876	44,484 (-28.4)		84,022	9,639	93,662 (-7.1)
- 위탁가공 교역	23,494	21,658	45,152 (-5.2)		69,563	47,678	117,241 (-4.5)
비거래성 교역	164	107,491	107,655 (15.7)		2,403	149,377	151,779 (-13.9)

자료: 통일부, 보도 자료 종합

1)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입 수요 위축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수입(잠정치)은 1,4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1%가 감소하였다.



가
 가 IMF
 가

,
 ,
 4

가 10
 85%

10 가

²⁾ . 2000 12
 6 4

2002

가
 가
 가
 IMF

가

2) 가 102 가 (2002. 1. 4)]

가
가 ,
가
가
가
가 ,大選



6.15

90

4

가 6

가
가 가

2%

3.5 4%

가

6.15



가
 , 가
 , 가

가

6.15 , 가 ,

가가

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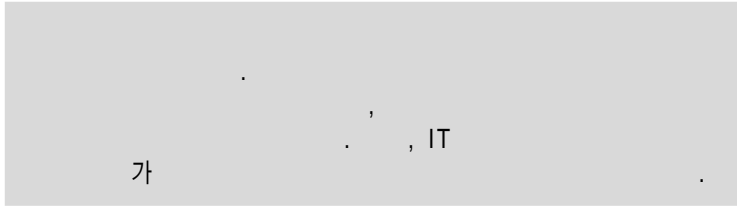
< 2> 가

(: , %)

	가	가	가	가	(A)		
					가 (B)	(B/A)	
1989	18,655	0	69	0	18,724	0	0
1990	12,278	0	1,188	0	13,466	0	0
1991	105,719	0	5,547	0	111,266	0	0
19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9	0.5
1993	178,167	2,985	8,425	4,023	186,592	7,008	3.8
1994	176,298	14,321	18,249	11,343	194,547	25,663	13.2
1995	222,855	21,174	64,436	24,718	287,291	45,892	16.0
1996	182,400	36,238	69,639	38,164	252,039	74,402	29.5
1997	193,069	42,894	115,270	36,175	308,339	79,069	25.6
1998	92,264	41,371	129,679	29,617	221,943	70,988	32.0
1999	121,604	53,736	211,832	45,883	333,437	99,620	29.9
2000	152,373	71,966	272,775	57,224	425,148	129,190	30.4
2001. 1 ~ 11	155,989	69,563	206,693	47,678	362,682	117,241	32.3

: , 「 」

가



가 , IT

가

IT , 가

30%

, ()
, 50%

, 가 ,
가 , ,

가

가

, IT 가

가

, 가 . IT ,

가

< 3>

IT ()

		S/W		72.7 154.4	2000. 3. 13 2001. 6. 16
() ()				200	2001. 7. 18
() ()		가 ‘ ,		400	2001. 8. 22
() ()	,	S/W		20	2001. 12.29

:

향후 남북 경협 방향은 ① 일방적 지원보다는 남북 상호 이익과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놓고 ② 소규모 사업이라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먼저 시작해 나가면서 대형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 기술력이 있으며, 사업 지역도 중국 등 제3국에서 가능하여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정보기술 산업을 성장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 사업에 밝은 전망을 던져준다. 금년 신년사에서 북한은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 발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남한 IT 업체들의 대북 진출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난해 승인된 경제협력사업 5건 가운데 4건이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을 비롯한 IT 분야였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 당국간 합의 프로젝트인 경의선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지난 6월 합의한 육로관광, 관광특구 지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현대측의 자금난과 관광객 유치 부진에 따라 사업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북한측이 체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육로관광을 허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인데,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관광이 가능할 경우 금강산 사업

의 기사 회생이 가능할 수도 있다.

경의선 연결사업과 개성공단 건설사업 역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북한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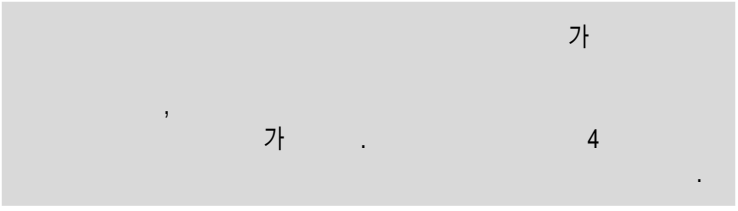
안보상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년 신년사에서 북한이 4대 제일주의의 하나로 군사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선군정치'를 주창하고 있는 바,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군부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도 사업 추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향후 남북 경협 방향은 ① 일방적 지원보다는 남북 상호 이익과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놓고 ② 소규모 사업이라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먼저 시작해 나가면서 대형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남북 경협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경협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제도를 구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위탁가공 교역은 현 단계 남북 경제 교류사업에서 가장 경제성과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위탁가공은 물류 체계, 기술자 방북

가 가



가 가

³⁾ 가 4

가 4 가 4

가 가 2002

가 

3) 800 (26km²) 27 가 3
 1 100 [(2001. 11. 15), "
 , " " , , 15~22 .]